

“우리가 잘해 이긴 것 아냐”... 승리에도 자세 낮춘 국민의힘

尹心으로 호소... 대선 연장전 ‘정당혁신위원회’ 출범 예고 “당 혁신 통해 국회 총선도 승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컨벤션 효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실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책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당 혁신을 통해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치른 만큼, 사실상 대통령선거 연장전 성격으로 평가됐다. 여당이 정권 안정론을 내세운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견제 차원에서 지지해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정책보다 대통령선거 결과에 기대는 모습이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인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 견제 차원에서 지지해달라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선거 결과는 여당 압승이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이겼다. 226곳에서 치른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 후보 145명이 당선돼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779명 선출)도 국민의힘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선자 491명을 배출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압승에 2일 “잡음 없는 훌륭한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다”며 최재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당혁신위원회 출범까지 예고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혁하고 노력할 부분들이 있었던 만큼, 보완해서 2024년 총선까지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당원 민주주의 구현, 공천 개혁 관련 국민의힘 P PAT(기초자격평가) 제도 보완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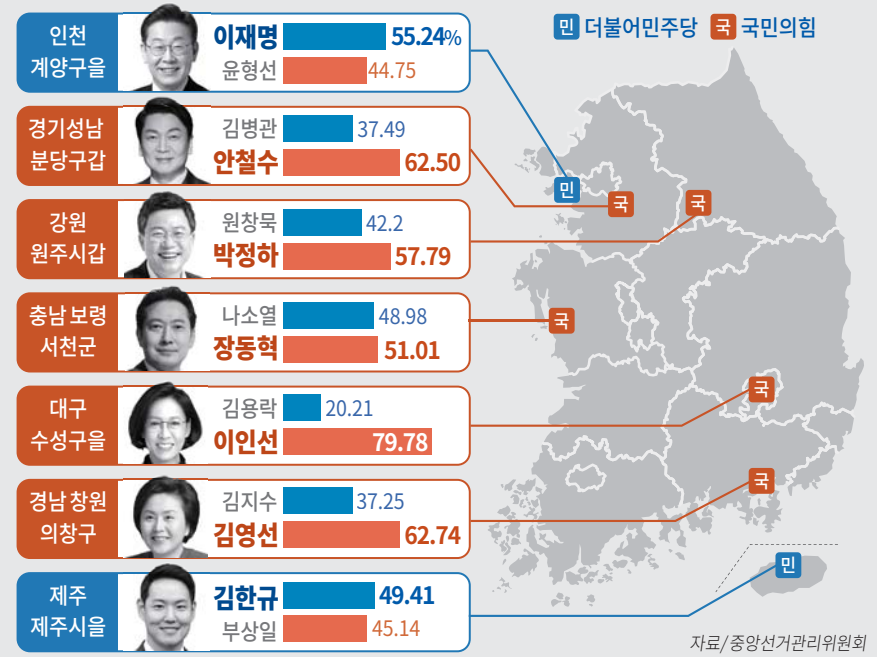
여당은 지방선거 압승에 대해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했다. 정당혁신위 출범을 예고

한 것도 이러한 평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라며 “민심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평가들도 민주당 실책으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압승 요인으로 “민주당에 대한 누적된 부정적 이미지에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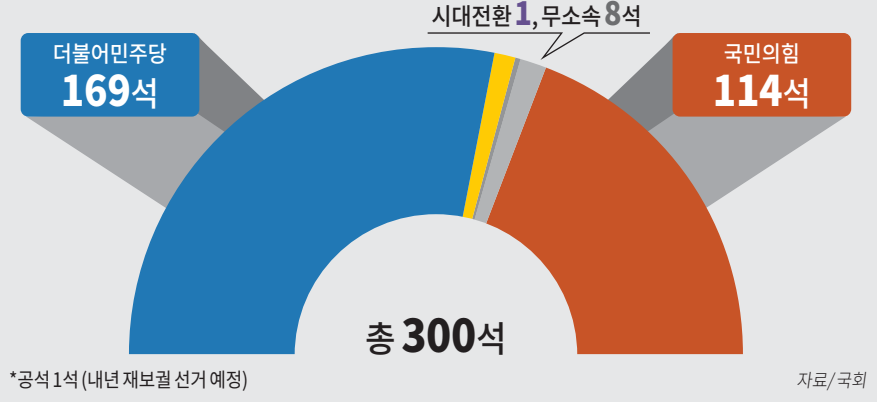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전날(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참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4·7 재보선 패배, 3·9 대선 패배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민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자료/국회

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선 결과에도 사실상 불복하며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입법 폭주를 해온 결과가 오늘 또 한 번의 패배를 자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처림회’ 등의 극단주의 세력, 이제는 기득권이 된 86 집단들의 퇴장이 없다면 2년 후 총선에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민심 회초리 맞은 민주당... 입법 독주로 쇠신기회 놓쳤다

대형 선거 3연패... 지방 권력도 뺏겨 이재명·송영길 출마, 피로감 더해 입법 독주 프레임으로 지지율 깎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싸늘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막판에 극적으로 승리하고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원내 진입에 성공했으나 전체 스코어를 놓고 보면 완패가 분명하다.

이로써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2021년)-제20대 대선-제8회 지선까지 3연패의 늪에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에게 불과 세 달 사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뺏기게 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미정상회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 등 호재가 많았던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당 내부 갈등이 드러나며 쇠신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선대위의 투톱인 윤호중·박지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이 불협화음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선을 코앞에 둔 5월 윤석열 초대 내각의 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나 당의 목표였던 ‘낙마’를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끌어내지 못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13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위원장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으나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이 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직후의 출마도 피로감을 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고향인 경기를 떠나 인천 계양구에, 송전 대표 역시 그를 키워준 인천을 떠나 서울시장에 도전하면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일찌감치 흘러나온 바 있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 차로 패배한 이 위원장이 조기에 선거판에 등장함으로써 ‘이재명 효과’를 누리려 했

으나, 정치 신인인 상대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대선 주자급으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관 민주당 후보에 압승을 거둔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도 중량감 있고 새로운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여 흥행을 이끌기를 원했으나 정작 최종 경선을 치른 것은 송영길 후보와 김진후 후보 둘 뿐이었다.

정당 지지율을 깎아 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추진도 유권자에게 ‘졸속 추진’, ‘입법 독재’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지만 윤석열 대

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발목을 잡았다.

또한,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태와 지선 막판 김포공항 이전·통합 공약 등도 민주당의 참패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분간 혼란 속에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는다. 윤호중·박지현 체제 비대위가 2일 총사퇴했고 의원총회·당무위·중앙위·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당 내부에선 이재명 위원장과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반성과 쇠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

개망서비스(SNS)에 “(선거 후) 패자가 할 일은 패배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받아들이며, 그 원인이 된 문제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밀쳐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과정을 전략적으로 호도하고 외곽했다. 그런 방식으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출발부터 그랬으니,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뒤따라 리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계로 알려진 이원욱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하며 당내 분열 양상이 표출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SNS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질책에도 반성과 혁신을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라며 “다시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놓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심을 버리고 오직 선당후사로 단합해야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며 당에 균열의 조짐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